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3년 1월 28일(월)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세안 10개국 '젠더와 개발' 커리큘럼 개발 워크숍 개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 포 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3년 1월 28일(월)

보도 날짜 : 2013년 1월 28일(월)

연론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1월 28일(월)~2월 1일(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10개국 '젠더와 개발' 커리큘럼 개발 워크숍을 개최한다.

본 워크숍은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세안 국가들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의 담론을 주도하고, 사회·문화 각 영역에 걸쳐 적극적인 변화와 정책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금숙 원장은 "젠더와 개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국가 발전과 사회문화적 성장이 기대되는 아세안 회원국가에 젠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사회의 기반이 될 대학생들의 의식 개선을 통해 양성평등이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개요>

- 아세안 국가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 정도와 역사 및 종교가 매우 다양하여 하나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여성역량강화 분야의 발전 및 인식 수준도 국가별 편차가 있다.
 -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으로 새천년개발목표(MDGs)달성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201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한국 KDI School에서 “젠더와 개발” 커리큘럼을 개설, 진행하였으며 “젠더와 개발” 교육훈련에 대한 수원국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사전조사에 따르면, 많은 아세안 회원국의 대학들이 이미 젠더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지만 이들 대학에서 젠더와 개발(Gender and Development, GAD)에 대한 개념이 국가정책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워크샵에는 아세안의 9개 회원국에서 교수 및 강사 15명, 아세안여성위원회(ACW) 관계자 8명, 강사진 6명 등 해외 참가자 29명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 등 10명 등 총 3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의 이주분야 관련 석학인 Brenda Yeoh 교수가 본 워크샵에서 발표자로 참여하며 이 밖에도 참가자들이 직접 NUS 내 아시아연구센터(ARI)를

방문하여 Yeung Wei-Jun Jean 교수와 싱가포르의 젠더와 개발관련 연구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워크샵에서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여성인권 분야 석학 Aurora Javate De Dios(Miriam College, Philippines)를 초청하여 공동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개발에서 젠더가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s)임에 따라 경제, 이주, 보건 등 다양한 주제로 세분화하여 아세안 회원국 교수들과 심도 깊은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주제발표에서는 전 총리 부인이자 재난관련 연구를 한 Maithree Wickramasinghe 교수(University of Kelaniya, Sri Lanka), 말레이시아 여성개발연구센터(KANITA) 소장 Datin Rashidah Shuib(Universiti Sains Malaysia) 등의 석학들이 해당 주제를 맡을 예정이다.

- 이번 워크샵의 주요 목적과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다.
 - ① 아세안 지역 대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젠더와 개발” 커리큘럼 개발
 - ② 아세안 사무국 내 여성위원회, 아세안 대학 네트워크 소속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
 - ③ 아세안 지역 “젠더와 개발” 강의를 통한 한-아세안 여성 전문 인력 네트워크 구축

붙임 1. 워크샵 개요

붙임 1. 워크숍 개요

- 일시 : 2013. 1. 28 (월) - 2.1 (금)
- 장소 : 싱가포르, 홀리데이인 싱가포르 아트리움

□ 워크숍 세부내용

- 강의 및 주제발표: 본 워크숍은 공통강의와 주제발표로 구성되며, 세계화, 인권, 노동, 보건, 폭력, 재해관리, 이주 등 젠더와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의 권위자들을 강사로 초청하여 젠더와 개발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의 틀을 논의하게 됨

○ 강의명

- 1) 젠더와 개발(Gender and Development)
- 2) 여성 인권 및 CEDAW의 활동(Women's Human Rights and CEDAW Activities)

○ 참가자

- 1) 한국 참가자: 연구진, 원내 토론자 등 총 10명
- 2) 해외 참가자 및 강사: ASEAN 회원국 내 대학 교수/강사 및 학자, 국내외 강사 및 주제발표/토론자, 아세안여성위원회 (ACW) 관계자 등 총 29명

ASEAN 국가별 참가자 인원	캄보디아	2명
	인도네시아	3명
	라오스	1명
	말레이시아	2명
	미얀마	1명
	필리핀	3명
	태국	1명
	베트남	2명
	소계	총 15명
ACW 내 ASEAN 국가별 참가자 인원	(아세안 8개국) 총 8명	
강사 및 주제발표/토론자	총 6명	
현지 워크숍 해외 참가자 총 인원	총 29명	

○ 주제발표

- 1) 젠더와 경제(Gender and Economics)
- 2) 젠더와 이주(Gender and Migration)
- 3) 젠더와 폭력(Gender and Violence)
- 4) 젠더와 보건(Gender and Health)
- 5)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 커리큘럼 개발 회의(Working Table)

- 참가자의 강의 계획서/커리큘럼 공유 및 커리큘럼 내용 협의/개발
- 커리큘럼을 개발함에 있어 국가별/주제별 특이사항에 대한 공유
- 젠더 관점에 입각한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 논의

※ 본 워크숍을 통해 개발된 한 학기(14~16 주) 강의 커리큘럼 중에서 선별된 커리큘럼은 향후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 예정

○ 결과발표 및 워크숍 평가

- 워크숍을 통해 개발한 국가별 커리큘럼 내용 발표
- 전체 워크숍에 대한 평가 및 정리

○ 관련 연구기관 방문

- 기관명: Asia Research Institut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 일정: 2월 1일(금)
- 목적 및 내용: NUS의 Brenda Yeoh 교수는 본 워크숍에서 강의하게 됨과 더불어 직접 본 연구기관을 방문함으로써 Yeung Wei-Jun Jean 교수를 면담하며 싱가포르의 젠더 연구 현황과 활동에 대해 논의하게 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